

저의 이야기에 이영숙씨 입에서 바로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긴장이 풀어지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한국어를 하게 되면 온몸이 긴장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저절로 인상 쓰게 되고 온통 머리가 복잡해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자의 입장으로써 확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한결 이영숙씨에 대한 오해감정이 풀어지면 서편안하게 중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이해 하나요?”

“말에 영어를 쓰지 않으면 70% 알아듣지만 영어를 쓰면...거의 힘들어요. 글씨는 50%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물의 원리는 간단 합니다. P53이라는 부르는 단어는 세포가 스스로 이상이 있을 때 스스로 자살을 유도하는 단백질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몸의 세포는 각 기관에 따라 틀리지만 1주기, 30일, 몇 년 주기로 세포가 스스로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 세포인데 암세포에는 P53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명령체계를 여기에 보이는 스티커와 세라믹 돌에 입력을 한 것입니다. 물이 이곳에 접촉되면 그 정보가 물에 기억이 되는 것 입니다. 흡수된 물과 물에 정보가 몸에 들어가서 비 정상세포, 즉 암 세포에 들어가서 자살을 유도하는 것 입니다.”

“아~~~이해가 됩니다.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기 치료와 동일 한 것 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이것에 대하여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현원교수”를 검색하면 김교수님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구매